

[2022-46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2. 9.9(금)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o	

제53회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정기 전시회

“인간의 소중한 존재의 회복”



제53회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정기전
The 53rd Annual Exhibition of Korean Artist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Recovery of being

September 16 - September 30, 2022

-
- ▶ 전시명: 제53회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정기 전시회
 - ▶ 전시기간: 2022.9.16(금)-9.30(금)
 - ▶ 오프닝: 2022.9.16(금) 19:00-21:00
 - ▶ 장 소: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공동주최: LA한국문화원,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 ▶ 전시장 개장: 월-금 10:00 -17:00
 - ▶ 불임: 전시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전시문의: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회장 양민숙)과 공동으로 "제53회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정기 전시회 (The 53rd Annual Exhibition of Korean Artist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를 9.16(금) 19:00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막한다.

이번 정기 전시회는 남가주미술가협회에서 총 70명의 회원작가들이 평면화부터 3D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KAASC)는 1964년 발족하여 정기전 외에 회원들의 그룹전과 타민족과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그룹전, 차세대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 및 격려를 위한 대학공모전 등 미주한인작가들의 작품활동과 전시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 작가들의 수가 늘어가면서 원로작가와 중견작가, 신인작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젊은 작가들의 신선한 작품부터 원로작가들의 성숙미 넘치는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접할 수 있다.

전시 참여작가는 강영일, 고경호, 권주경, 김경애, 김다니, 김성일, 김소문, 김연숙, 김연희, 김영식, 김운옥, 김원실, 김인철, 김종성, 김 진실, 김진희, 김천애, 나모나, 남궁경, 문미란, 박미연, 박영구, 박정근, 박향자, 박다애, 박미경, 배정연, 백혜란, 서 자넷, 서진호, 성수환, 손영숙, 송문영, 시 제시카, 심혜경, 양민숙, 양승성, 오 미셀, 오지영, 유기자, 윤영은, 윤태자, 이 로버트, 이미정, 이부남, 이 사베리아, 이상훈, 이정미, 이종남, 이혜숙, 임혜경, 장사한, 장 제인, 장정자, 전미영, 전종무, 정 니나, 정선화, 정은실, 정인옥, 조현숙, 조민, 주선희, 최윤정, 최성호, 최재우, 홍정화, 홍한나, 황 수잔, 황영아 등 총 70명이다.

LA한국문화원 정상원 문화원장은 "코로나이후 요즘 LA전역에 걸쳐 정말 많은 한인갤러리들의 한인작가 전시들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 영화에 이어서 K-Art 미술한류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습니다. 이에 발맞춰 올해 정기전에 많은 한인회원작가들의 다양하고 훌륭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다.

양민숙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회장은 "올해로 53회째 협회 정기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껏 회복되지 않은 코로나 사태와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협회 회원 작가들은 한국인의 문화적 배경속에서 이시대의 리더임을 자부하며 수준높은 예술적 기량으로 조각, 설치, 페인팅 등 여러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7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정기전에 많이들 방문해 주셔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라고 밝혔다.

“제53회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정기전”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 갤러리에서 9.30(금)까지 계속된다.

더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

